

# 뇌졸중환자 45% 발병후 10년내 사망

뇌졸중 환자 10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명은 치료를 받던 기간 내 숨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여명이 10년간 의료비로 지출한 비용이 4600억원이 넘었다.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는 뇌병변 장애 주원인 질환 중 하나인 뇌졸중 신규환자 심층 분석 결과를 18일 이같이 발표했다. 그간의 의료이용 추이와 누적 사망률, 장애등록률, 뇌병변 장애인의 장애등급 변화 및 장애 등록 전후 소득계층의 변화를 분석했다.

2005년 신규환자 4만9726명 가운데 44.73%에 해당하는 2만 242명이 뇌졸중 발생 이후 10년에 걸쳐 사망했다.

발생 시점 연령이 높을수록 10년간 누적 사망률도 증가했다. 발생 시 연령이 초고령기(85세 이상)인 경우 누적 사망자가 2538명으로 사망률은 92.70%였으나 고령기

## 국립재활원, 신규환자 4.9만여명 10년간 추적 뇌병변 등 장애등록률 28%...평균 2년 안걸려

(65~84세) 59.15%, 장년기(45~64세) 24.41%, 성인기(18~44세) 16.86% 등으로 점차 낮아졌다.

연구소 관계자는 "그러나 2년 이전 누적 사망률을 성인기 인구 집단과 장년기 인구집단을 비교한 결과, 성인기 집단에서 12.49%로 장년기 집단(12.23%)보다 더 높은 누적 사망률을 보였다"며 "이는 뇌경색 대비 중증도가 심한 뇌출혈이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에 기인한 결과"라고 추정했다.

뇌졸중 환자들은 2014년까지 10년 동안 총 진료비로 4618억원을 지출했다. 환자 1인당 진료비는 928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발병 다음해인 2006년 환자 수는

전년의 91.72%인 4만5611명이 감소한 4115명으로 나타났다. 이후 환자는 꾸준히 줄어 10년차에는 3.03%인 1507명만 뇌졸중으로 입원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10년간 장애등록자는 1만4088명으로 뇌졸중의 장애등록률은 28.33%를 보였다. 병 발생 후 장애 등록까지 걸린 시간은 2년이 채 안 되는 평균 22.48개월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뇌병변이 1만1155명(79.18%)으로 가장 높았고 치매가 1176명(8.35%)으로 뒤를 이어 두 장애유형이 87.53%를 차지했다.

전체 뇌졸중 환자들이 지출한 진료비 중 59.72%인 2758억원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환자를 뒷지었다.

장애 등록 환자들은 등록 이전에도 많은 진료비를 내고 있었다. 전체 진료비(2758억원) 중 장애 등록 이전(1215억원)과 이후(1543억원) 차이가 328억원으로 11.90%p 정도였다.

연구소 관계자는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등록을 한 비율인 28.33%에 비해 장애등록자들의 10년간 발생한 총 진료비의 비율인 59.72%를 비교해 볼 때 총 진료비의 비율이 장애등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뇌졸중 발생 이후 초기 집중 재활의료서비스를 강화시켜야 함은 물론 재단적 의료비의 지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재정적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애 등록 이후 재발정 시 대부분(93.18%)인 9798명이 중증도가 조정되지 않았다.

뉴스스

## '미투 여파' 성폭력 피해기관 이용 증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 이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비라센터와 여성긴급전화1366 1분기(1~3월) 전국 이용 건수가 1만1392건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8442건에 비해 35%가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비라센터에서 상담 건수는 3831건에서 4429건으로,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건수는 4611건에서 6963건으로 늘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달 8일 여성가족부에서 개설한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교육 등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 접수건수를 포함하면 1분기에만 1만2000건이 넘는 신고와 상담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해비라센터, 1366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경험과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신고센터를 40여일 간 운영해 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신고해도 2차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신뢰가 더욱 견고히 쌓이게 되면 신고 건수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스



우리 잘 지내자 18일 전북 김제 죽산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음매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염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학교음매는 농촌진흥청이 진행하는 동물교감교육 시범 사업의 프로그램이다.

## '도끼까지' 경찰활동 홍보위해 SNS에 위험 영상 게시

광주경찰청이 경찰 활동 홍보를 위해 피의자가 도끼를 들고 쫓아가는 영상까지 SNS에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5시17분께 광주경찰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식계정에 '찾간인지 도끼를 들고 달려드는 아저씨...순간 맨몸으로 안았습니'는 글과 함께 동영상 1편을 게시했다.

이 영상은 지난달 11일 오후 3시께 광주 동구 한 주택가에서 피의자 A(51) 씨가 조카 B(35·여)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일로 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사건을

담고 있다. 영상에서 한 경찰관은 피해자 B 씨를 피의자 A 씨와 격리시키기 위해 순찰차로 데려가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손도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B 씨에게 뛰어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순간 근처에 있던 한 경찰관이 몸을 던져 A 씨와 함께 넘어지며 위험 상황을 제지했다.

영상 속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다.

반면 경찰의 피의자 제압 순간은 정지장면으로 편집됐다. 또 손도끼

의 모습을 확대하고 빨간 원으로 이를 강조하는가 하면 자막에까지 도끼를 명시해냈다.

현장에서 피의자의 위험한 행동을 제때르게 제압한 경찰관의 행동은 당연히 박수 받을만한 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장면까지 게시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더욱이 광주경찰청 공식 SNS는 미성년자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게시글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교육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신봉우 기자

## 프랑스 男, 세계최초 두 번 얼굴이식 수술 성공

프랑스 파리의 한 남성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번의 얼굴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국 CNN방송은 파리에 사는 제롬 하몽(43)이 두 번의 안면 이식 수술을 받은 세계 첫 남성이 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몽은 피부와 중추신경계의 특징적인 이상을 동반하는 신경섬유종증을 치료하기 위해 2010년 1월에 첫 안면 이식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하몽의 몸에서 거부반응이 나타났다. 이식 거부 반응은 환자의 면역계가 이식된 장기나 조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 발생한다. 만성적인 거부 반응은 수년 동안 일어날 수 있고, 신체의 지속적인 거부 반응은 이식된 장기나 조직에 천천히 손상을 줄 수 있다.

하몽이 첫 얼굴 이식에 대해 만성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6년. 그는 이때인 지난해 10월 얼굴 이식 수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몽은 같은해 11월 이식했던 얼굴을 모두 제거해야 할 정도로 이식 거부반응이 심각했다. 그는 두번 째 이식 수술을 받을 때 까지 3개월 동안 병실에서 얼굴 없이 살면서 보거나 말하거나 듣지도 못했다.

외과 의사 로랑 란티에리 박사가 이끄는 유입 조르주 폰피우 병원의 의료진은 올해 1월 하몽의 두 번째 이식수술을 시행했다.

하몽은 두 번째 수술에선 면역치료를 받아 이식 거부 반응 위험을 낮췄다. 또 몇 개월 동안 계속되는 심리지원과 언어 치료를 받았다. 하몽은 병원에서 총 8개월을 보낸 뒤 일주일 동안 퇴원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 인도서 트럭 다리 아래로 추락 21명 사망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 결혼 하객을 태운 경트럭이 다리 아래로 떨어져 최소한 2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디아 프라데시 주 주도 보팔 동쪽 약 573km 떨어진 시디 지구의 소네강에서 전날 밤 다리 위를 주행하던 트럭이 강으로 추락했다.

딜립 쿠마르 시디 지구 행정관은 부상자들을 관내 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고 있다며 그중 3명이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다.

당국은 사망자 시신 수습 등 사고 후속 처리를 마쳤다고 한다.

시브라지 싱 초우한 마디아 프라데시 주 지사는 이번 참사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에 사망자당 3045달러(약 32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정월초과와 노후화한 도로, 미비한 안전시설 부주의한 운전 습관 등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공식 통계로는 매일 각종 교통사고 때문에 평균 400명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 항공기 비행중 엔진 폭발 '금속 피로' 때문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17일(현지시간)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를 필라델피아 공항에 비상착륙하게 만든 비행 중 엔진 폭발의 원인이 '금속 피로(metal fatigue)'인 것으로 예비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밝혔다.

로버트 섬윌트 NTSB 위원장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비행기 엔진의 팬 블레이드(fan blades) 중 하나가 분리돼 사라졌다고 말했다.

섬윌트 위원장은 이어 금속 피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을 떠나 델라스로 향하던 사우스웨스트항공 보잉 737기는 3만 피트(9144m) 고도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유리창을 부수며 여성 승객 한 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으며 여객기는 필라델피아에 비상착륙했다.

CNN, NBC,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는 뉴멕시코 앨버커키에 거주하는 제니퍼 리어던이란 이름의 40대 여성으로 그는 유리창이 부서지면서 비행기 밖으로 삼반신이 떨어져 나갔다가 남성 승객들의 도움으로 겨우 안으로 끌려 들어왔지만 엔진 파편에 심한 상처를 입은 많은 양의 피를 잃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섬윌트 위원장은 또 필라델피아로부터 약 112km 떨어진 펜실베이니아주 베어빌에서 엔진 커버 일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엔진 폭발이 일어난 항공기와 같은 기종 여객기들의 엔진 검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장애진행기 건강진단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검진기관이 운영되어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